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그러하다.

< 구소련의 요소 수출실적 >

(Million t. N)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E
BALTIC STATES	0.1	0.1	0.2	0.2	0.1	0.1 ?
BELARUS	0.1	negl.	0.1	negl.	0.1	0.1
RUSSIA	1.3	1.5	1.9	1.7	1.3	1.3
UKRAINE	1.2	1.1	1.1	1.1	1.2	0.9
UZBEKISTAN	negl.	negl.	0.1	0.1	negl.	-
FSU TOTAL (1)	2.7	2.8	3.3	3.1	2.7	2.4

(1) FIGURES DO NOT ADD UP TO ROUNDING

통계에 의하면 구소련의 요소 수출량은 1995년의 330만성분톤(제품 720만톤)으로부터 1997년에는 270만성분톤(제품 590만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는 전적으로 러시아에서 발생하였다. 1998년에는 러시아의 수출량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상황은 변하였다. 요르단에서 개최되었던 IFA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 설명된바와 같이 천연가스 가격은 8월이후 상당히 하락하였다.

비록 많은 불확실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러시아 요소 수출량의 감소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출량은 국제시장에서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증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요소 수출량이 1997년 후반과 1998년초에 감소되었다. 우크라이나 통화의 장래는 불안정된 상태이다. 요르단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회의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천연가스의 배송이 재조직되었다. 따라서 요소 수출의 미래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통계에 의하면 구소련의 요소 수출형태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중남미 수출량은 크게 증가되었다. 비록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최근의 요소 공장 사고는 1998년 후반부터 1999년초까지 수입요구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수출은 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